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적 지도자에 대한 명령

(말라기 2:1 -9)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주석책에서 “설교자의 입술은 교회의 공적 저수지와 같아서 말씀이 그 입술에서 흘러나가지 않으면 썩고 말 것이다. 말씀은 읽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며 선포되는 말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음성은 잘못된 영을 깨우고, 격려하며 새로운 결심을 하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향하는 사람을 인도하고 회개한 심령을 위로해 줍니다.

본문의 내용은 제사장에 대한 책망입니다.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만민 제사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인 지금의 성도는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더러 마음에도 두지 않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2-3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트’입니다. ‘카보트’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의 말씀과 권위를 무겁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5절). 하나님은 레위 지파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구약성경은 신약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은 제사장은 생명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 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므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 하나님의 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5절).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에게 생명과 평강을 세우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경외를 영어로 ‘fear(두려워하다)’, ‘reverence(존경)’로 너무 두려워하므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시 111:10).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 뿐 아니라 참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된 우리는 모든 것을 우선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증은 하나님 말씀에 헌신 한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6절).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 있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소중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되 전체(whole truth)를 말해야 합니다. 복을 말할 때는 저주도 말해야 하고 회개를 말할 때는 회복도 말해야 합니다. 물론 진리는 부분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를 말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헌신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 생애를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3. 하나님의 증은 경건한 성품과 행위를 가져야 한다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6절).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성품을 가졌다는 것은 이기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기심을 가지고서는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회생이 없는 영적 지도력은 불합리하고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4. 하나님의 증은 교훈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7절).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의 보내신 메신저입니다. 그의 입에서 백성을 향한 교훈이 나와야 하고 백성들이

가야할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교양강좌나 상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지식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9절).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므로 하나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주석책에서 “설교자의 입술은 교회의 공적 저수지와 같아서 말씀이 그 입술에서 흘러나가지 않으면 썩고 말 것이다. 말씀은 읽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며 선포되는 말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음성은 잘못된 영을 깨우고, 격려하며 새로운 결심을 하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향하는 사람을 인도하고 회개한 심령을 위로해 줍니다.

사탄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포된 말씀 앞에서는 도망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된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방사용재배정하다

교회는 대치동 예배당에 입당을 한 이후 성도의 증가와 더불어 교회학교 등에서 방을 변경하고 분반을 하게 되어 주일 방을 사용함에 혼란이 있어 전체적으로 주일 부서에서 사용하는 방과 사용시간을 점검하여 순례자에

발표하였다.

각 부서에서는 정기적인 모임 이외에 특별히 다른 시간에 방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아래에 나와 있는 도표를 참고하여 사무국에 사용신청을 하면 된다.

방	101	102	104	402	403	501	502	503	504	505	51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701	702	703	704	705	706	801	802	
시간	10:00-10:30	10:30-11:00	11:00-11:30	11:30-12:00	12:00-12:30	12:30-1:00	1:00-1:30	1:30-2:00	2:00-2:30	2:30-3:00	3:00-3:30	3:30-4:00	4:00-4:30	4:30-5:00	5:00-5:30	5:30-6:00	6:00-6:30	6:30-7:00	7:00-7:30	7:30-8:00	8:00-8:30	8:30-9:00	9:00-9:30	9:30-10:00	10:00-10:30	10:30-11:00	11:00-11:30	
1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2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3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4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5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신앙

2005년도 비전2020 후원자 모집

비전2020 위원회에서 2005년도 후원자를 모집한다. 지난 해 우리 교회 비전2020위원회가 육사, 3사단, 23사단 세례식 지원, 자이툰 부대 환송예배 및 위문품 전달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내외의 활동들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후원자 여러분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 비전2020위원회는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이상 복음화를 위해서 올해도 여러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세한 경과 및 사업계획은 후원자의 밤을 통해서 보고할 계획이다. 후원자는 1인 월 세례경비 3000원을 한구좌로 정하고 신청하면된다. 많은 후원 바란다.

2005 성경암송대회 범위 변경

글로벌에서 빌립보서로

오는 10월28일(주)에 실시될 예정인 2005 성경암송대회 범위가 변경되었다. 처음에는 글로벌에서 범위를 삼았으나 조정을 거쳐 빌립보서 전장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성경암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은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

중국어 인터넷 방송 시작되다

1월9일(주) 첫방송

www.c-highway.com

이중용 담임목사의 설교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방송하게 되어 중국어를 사용하는 중국본토와 대만, 화교권까지 우리의 선교지로 확장하게 되었다. 우리교회 설교방송이 나가게 될 인터넷 방송의 주소는 www.c-highway.com으로 중국 혹은 중국어권에 사시는 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기도한다.

서울교회 다락방장 10대 수칙

1. 나는 서울교회 위임목사, 교구목사 그리고 다락방 가족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부지런히 심방한다.
2. 나는 다락방 가족을 주님 사랑하듯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긴다.
3. 나는 다락방 가족들의 화목과 신앙 증진을 위해 믿음과 회생의 본을 보인다.
4. 나는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겸손히 나눈다.
5. 나는 무례한 언행과 금전거래를 삼간다.
6. 나는 서울교회 청지기로 품위를 지킨다.
7.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감절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바친다.
8. 나는 다락방 가족 유교시 그리고 모임에 대한 보고를 성실하게 한다.
9. 나는 교구목사, 교구장의 지도방침에 적극 협력한다.
10.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락방 가족의 경조사에 솔선수범한다.

2005년 위원장에게 듣는다

믿음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한해

노련환 장로(기획위원장)



지난 13년간 우리들을 힘차게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예배당 헌당을 허락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먼저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도 우리들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환으로 목회자 신학세미나 26학기를 이어오게 하였으며, 농어촌 100교회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민족복음화의 일익을 감당하게 하였고 김치신학세미나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지평을 넓혀가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Vision(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10년까지 선교사 100명을 보내는 교회, 교회학교에서 10,000명의 학생들이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더 널리 펼치는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꿈을 우리에게 허락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목회자 신학세미나, 김치신학세미나, 농어촌 100교회 운동과 70인 전도대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계속 진행하면서 선교사 100명을 보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한해로, 교회학교 학생 10,000명 출석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온 교회가 한 방향으로 전진하는 한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장선 몇 사람들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큰 꿈이기에 모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믿음의 대장정에서 한사람도 뒤처지는 사람이 없이 모두 승리자가 되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한 예배자가 됩시다

김영준 장로(예배위원장)



하나님께서서는 옛세 동안 힘써 일하시고 이제 되는 날 안식하셨으나 부족한 저는 숨 가쁘게 일하다 쉬는 평안함이 아니요 자랑할 만한 수고 없이 좀 더 충성하였더라면 하는 후회와 아쉬움으로 맞이하는 안식년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안식년을 애써 감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돌아보며 영적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교회에 더 큰 유익과 덕을 끼쳐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이 되길 기도하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부족한 사람을 사명자로 다시 부르신 하나님과 당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예배위원장의 직분을 주셨으니 모퉁이 돌이 되어 최선의 예배를 위해 충성하렵니다. 서울교회의 예배가 우리의 후손과 한국교회와 나아가서 지구촌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돕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평가하는 예배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돕는 예배자가 되어 영혼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순결서약식을 마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장호진(대학부)

2005년이 되어 25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중요한 반환점이라는 20대 중반의 나이에서 사회적 물결에 쓸려 다니기 쉬운 이때 아버지 하나님께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이번 순결서약식을 통해 나의 몸과 마음의 순결을 다시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순결서약식 하루 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영의 구원뿐 아니라 내 육체의 구원과 이미 죄악 된 자도 용서하여 순결케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저절로 아멘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서약식이 끝나고 손을 끼워진 반지를 보면서 나는 주님이 보내주시는 짝을 만나기 전까지 주님의 신부가 되어 내 몸과 영을 깨끗이 지키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용히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의

자도 정결케 하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여, 저는 너무나도 나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 끌려내려 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더 성장하여 이 세상의 물결에 허우적대고 있는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자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일을 제 평생의 비전이자 기도로 삼게 하시옵소서. 제가 주님이 선택하여 주신 배우자를 만나는 그날까지 순결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약속드립니다. 아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더러운 저의 영육을 깨끗케 하시고자 순결을 서약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하신 주님, 이미 더럽힌

천국시민양성

사랑하는 고등부를 떠나며...

임형빈(대학부)

사랑하는 후배들 그리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등부를 졸업하게 된 3학년 임형빈입니다. 3년이란 시간동안 여러 번의 수련회와 아이노스의 밤, 락 인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고 고등부 친구들과도 많이 친해져 3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되라고 하시는 슬로건 아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오목사님의 지침이 생각납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믿음의 결단이 부족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제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각 반의 담임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 사회의 바쁜 생활 중에서도 헌신하고자 봉사 하시는 참 스승의 구별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금도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감사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등부에 처음 왔을 때 아는 사람도 없고 모두 학원에만 집중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회계를 해보지 않겠냐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는 승낙했고 그러면서 교회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행사 때마다 학원이란 장애물 때문에 친구들을 설득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열정을 보여주는 여러 친구들 덕분에 힘이 나 저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있는 후배들이 있다면 어느 부서에든 지원을 해 보세요. 고등부의 단체생활을 통해 친교는 물론 자신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3학년이 되는 후배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고3 생활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일성수는 꼭 지켜주세요. 노력했는데 모의고사에서 실패하고 고3 내신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더라도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은 결코 후배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2학년이 되는 후배 여러분들께도 역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2학년 때는 위로는 고3 선배들의 격려와 조언을 구하며 아래로는 1학년 후배들을 이끌며 가장 교회 생활을 진지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고등부가 활성화 되도록 언제나 활력소 역할을 해주시고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주세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계명인 것 같습니다. 저희 3학년이 올라가더라도 고등부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끼면저 더욱 부흥하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등부 학부모 초청의글

중등부 학부모를 모십니다!

1월 16일(주일) 10시 501호에서

이태원 집사(중등부 부장)

1월 16일(주일) 중등부에서는 "2005 학부모 초청 주일" 행사를 갖습니다.

한 달여 동안 준비되어 온 이 행사는 귀한 자녀들을 중등부에 보내주신데 대해 학부모들께 감사드리고 올해 중등부의 교육 계획들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담임교사들의 교육철학, 반운영 방침, 생활지도 문제, 1년간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우리의 교육 현장은 기독교적인 기풍이나 사회적 영향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회교육은 많은 한계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심각한 상황의 타개를 위해 간의 교회 교육이론을 대치할 수 있는 교육 이론들이 다각적으로 제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론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효과적인 교회교육의 방안 중 하나가 바로 교회교육의 장이 대부분 교회로 제한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학교 교육과 가정에서의 일관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생활 속에서 모범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 미치는 영향력도 대단히 큼니다. 따라서 온전하고 효과적인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이 긴밀한 관계를 갖고 서로 협조해야 합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가장 밀착되어 있는 학부모와 함께 가정에서도 성경에 근거한 참된 신앙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와 교회가 어떻게 함께 발맞춰 나아 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의 뒷받침 못지않게 학부모들의 관심과 격려,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학부모가 교회의 교육 방침과 교사의 교육관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다면 우리 학생들은 신앙적으로 훨씬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천국시민양성 - 청지기수련회

2005년 청지기의 사명을 위하여...

찬양대의 역할과 자세

교사의 기도와 사랑의 손길로 거두는 열매

교회는 세상에 선교(전도)를 위해 존재한다

예배와 찬양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찬양은 성도의 본분이며 또한 축복이다. 그러므로 구별되어 부름 받은 찬양대원은 찬양에 소명 받은 신앙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우리교회는 년 4회 7주 과정으로 운영되는 찬양대 양성반 수료자를 찬양대원으로 임명하는데 찬양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도 처음 찬양대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찬양대원은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찬양대에서 실시하는 장년부 성경공부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는 말씀의 성장만큼 찬양의 영성도 깊어지기 때문이다.

찬양대는 어느 부서보다도 시간 봉사를 많이 해야 한다. 예배 전과 후 뿐만 아니라 주중 연습을 통하여 준비된 찬양, 온전한 찬양을 드려야 한다. 따라서 찬양대원은 소속된 찬양대의 연습에 빠짐없이 참석하여야 한다.

또한 찬양대원은 예배 위원으로서 예배의 순서를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예배의 자세 또한 성도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특히 찬양대 가운을 입고 난 후에는 행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모든 성도가 생명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거니와 특히 예배를 섬기는 특권을 받은 찬양대원은 청지기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김운호 목사님은 신명기 6장을 통해 부모는 자녀들의 영적 교사가 되어야 하며 교사는 말씀과 기도, 성령,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고 학생들을 양육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5시 30분에 웨스트민스터 홀에서는 '교사학교 교육과 운영'에 대한 말씀이 계속 되었다. 교회학교 교육이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기독교의 진리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데 있으며,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에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 할 것과 교사는 늘 학생에게 긍정적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랑과 관심을 잊지 말 것을 부탁했다.

서울교회 3대 목표 중 하나인 천국시민 양성은 곧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교회학교 교육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회학교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우선 성장목표로 학생 만 명 출석을 꼽았다. 또한 모든 2005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게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준비하며 특히 전도 교육에 힘써 달라 고 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은 성경공부에 달려 있다며 교사의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또 부장을 중심으로 모든 면에 술선 수범 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교사의 수고와 사랑에 감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었다.

교회는 전도하기 위한 공동체이다. 교회의 이와 같은 선교적인 성격과 소명 때문에 교회생활의 초점과 구조는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세상에 있다. 교회가 이 목적을 수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세상으로 하여금 새로운 질서를 향해 초청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의 전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의 주관아래 모으시기를 원하신다. 교회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끔 해야 한다. 교회가 다른 민족 다른 지역에 복음을 들고 찾아 갈 때에 온 세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선교(전도) 없는 곳에 교회란 없다. 선교(전도) 없는 곳에는 신앙도 없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위탁의 말씀은 선교(전도)하는 것이다. 각 전도회와 선교회 별 1년 사업 계획을 통해 기본 사역과 책임 사역에 적극 동참하며 각 전도 학교 교육이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므로 교회 중직자, 인근교구(1,13,14,2,3,4), 일꾼, 교회학교 교사들 각 전도회 선교회원들을 교육 받게 한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 교통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세계를 교구로 삼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되어 복음 안에서 지구촌 한 가족이 되도록 선교하는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허숙(편집부)

유명식(편집부)

신동기(편집부)

<임명>

- 제5기 단기선교단장: 홍성주 장로
- 제5기 단기선교지도: 서명철 목사
- 사랑부 찬양대 지휘: 곽정임 성도
- 흥해작전 지도: 오정식 목사
- 사명자 대회 지도: 윤영국 목사

지하1층 교육실 완공 -사랑방으로 부르기로-

교육공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에 작은 도움을 주고자 농구대가 있던 지하 1층 공간을 사랑방으로 꾸미고 입주식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헌당도 안한 교회가 벌써 좋다는 비명(?) 소리가 들리니 감사해야 할 일 아닌가. 할렐루야!

동정

■ 이종운牧사는 10일(월) 서울여대 총장추천위원회에 참석한다.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영락교회 제직수련회를 인도한다.

■ 이사: 최금자 권사(11교구) 송파구 잠실본동 잠실포스코 the #501 호 T. 414-7384

양재현 성도, 오은숙 집사(12교구) 용인시 죽전동 포스홈타운 210-401호 T. 031-384-1858

조용식 집사, 유명식 권사(4교구) 서초구 반포4동 미도2차 503/403 전화:532-5086

정인주 집사, 김정애 집사(9교구) 광진구 구의동 현대프라임 @ 2-2004 T.3437-2870

■ 호주 멜버른 세계 농아올림픽대회에 에바다부 이종봉 성도 참석

■ 바울선교회 신년기도회 1월15일(토) 오후3시 교회출발

■ 주간식당 봉사: 도르가 여전도회(1월9일) 루디아 여전도회(1월16일)

2005년 농어촌100교회후원현황

번호	교회명	목회자(목/전)	후원자
123	반석교회B	박경양(목)	김재성, 유순섭
124	예산수경교회	고영국(목)	문상엽
125	예덕교회	박영기(전)	문상식
126	회남교회	홍승표(목)	정병우, 박경희
127	양산교회	신건선(목)	이찬호, 최정순
128	어담제일교회	정재용(목)	유승훈, 소선자
129	특리교회	이만음(목)	하영수, 박정순
130	평강교회	김금동(목)	신용식, 김신영
131	여남교회	김성오(목)	장덕
132	백도교회	이기성(목)	예사모/1-22 다락방
133	장흥동부교회	김명철(목)	희비여전도회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을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기독교 TV - (http://www.cts.tv) 중국어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1 서울교회, 세상의 소망 되도록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4. 국론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